

가정 예배 모범

- 2021_09_19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9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때로는 삶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해 주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세상의 유혹 시험이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출애굽기 17:1-16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여정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비딴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셨던 사건을 경험했지만, 백성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 냈느냐고 거칠게 따지며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또한 차라리 바로의 노예가 낫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필요를 채움 받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끝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2) 그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전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양팔을 지지해준 아론과 훌, 또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며 싸운 여호수아와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간절히 기도하며, 그 문제에 맞서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